

山东大学

二〇一七年招收攻读硕士学位研究生入学考试试题

科目代码 362 科目名称 朝鲜语翻译基础

(请将所有试题答案写在答题纸上, 写在试题上无效)

一、把下列汉语词汇翻译成韩国语 (每个词汇 1 分, 共 15 分)。

1. 中国梦
2. 金砖国家
3. 花旗银行
4. 国际奥委会
5. 110 米栏
6. 东京
7. 智能手机
8. 明治维新
9. 核潜艇
10. 经济危机
11. 大气污染
12. 名胜古迹
13. 外汇储备
14. 鸡尾酒
15. 绿色食品

二、把下列韩语词汇翻译成汉语 (每个词汇 1 分, 共 15 分)。

1.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 무기징역
3. 지성피부
4. 호우주의보
5. 베어마켓

6. 매니저
7. 순차통역
8. 다각화전략
9. 다큐멘터리
10. 아카데미시상식
11. 배터리
12. 워크숍
13. 조간신문
14. 청사진
15. 공무원연금

三、把下面的汉语文章翻译成韩国语 (每个文章 30 分, 共 60 分)

1. 据报道, 2015 年韩国就业领域将投入的预算增幅高于政府总预算规模的增幅(5.7%), 并创下历史最高水平。韩国政府表示, 为完成提高就业率至 70% 的国政课题, 其核心任务是提高女性和青年就业率。此次预算案中, 首次在中小企业中新增中小企业长期工作补贴, 鼓励青年扎根中小企业, 雇佣部称将有 1400 余人受惠于此项补贴。为鼓励雇员工作同时继续进行自我开发, 韩国明年将投入 2158 亿韩元用于打造工作学习并行制度。除此之外, 韩国政府将投入 160 亿韩元用于支援临时工转换为正式员工, 就业促进支援金也由 305 亿韩元提高至 665 亿韩元, 该项资金将用于鼓励弱势群体就业。

2. 茶, 是中华民族的举国之饮。发于神农, 闻于鲁周公, 兴于唐朝, 盛于宋代。“文人七件宝, 琴棋书画诗酒茶”, 茶通六艺, 是我国传统文化艺术的载体。中国茶文化糅合了中国儒、道、佛诸派思想, 独成一体, 是中国文化中的一朵奇葩, 芬芳而甘醇。如今, 茶已发展成为风靡世界的三大无酒精饮料之一, 饮茶嗜好遍及全球。在英国, 茶被视为美容、养颜的饮料, 从宫廷传到民间后形成了喝早茶、午后茶的时尚习

俗, 博学的勃莱迪牧师称茶为: “健康之液, 灵魂之饮”。在法国人眼里, 茶是“最温柔、最浪漫、最富有诗意的饮品”。在日本, 茶不仅被视为是“万病之药”, 是“原子时代的饮料”, 而且发展升华为一种优雅的文化艺能—茶道。

四、把下面的韩国语文章翻译成汉语 (每个文章 30 分, 共 60 分)

1. 나무는 덕을 가졌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동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우니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 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진달래를 내려다보되 깔보는 일이 없고 진달래는 소나무를 우러러보되 부러워하는 일이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작 앓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 성과와 관련해 “이미 방문에 성공을 거두고 풍부한 성과를 이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빈 자격으로 방한 중인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접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국정부, 한국 국회를 비롯해 한국 각계에서 저희 이번 방문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세밀하게 준비해줬다”며 이 같이 높이 평가했

다.

지난 7월 3일 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판다 한 쌍을 선물하기로 했다. 한 쌍 당 연간 100만달러(10억 97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한국에 빌려주는 ‘임대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중국을 벗어나 외지 생활을 하는 판다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13개국 18개 동물원 47마리에 불과하다. 중국은 1972년 미국과 수교할 때를 비롯해 일본·영국·프랑스 등과 국교를 맺을 때마다 판다를 선물했고 중국의 ‘판다 외교’란 말까지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시 주석의 판다 선물에 대해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